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성구(갑)
책자형 선거공보

1

대구발전과
대한민국의
당당한 내일을
위하여

대구에 꼭 필요한 힘

김부겸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성구갑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남	1958.01.21 (62세)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현) 제20대 국회의원(4선) (전) 행정안전부 장관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088,725	206,834	870,702	부: 고지거부 모: 고지거부	삼녀: 11,189	보충역 및 소집면제	해당 없음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40,995	0	0	국가보안법위반(기타)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1993.02.22)
후보자	38,984	0	0	
배우자	1,656	0	0	
직계존속		부: 신고거부 모: 신고거부		
직계비속	355	0	0	

4. 소명서

직계존속(부친)은 군인연금생활자로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고지대상에서 제외됨.
후보자의 병역사항은 민주화운동 수형으로 보충역 및 소집면제 받음.

대구와 대한민국의 **당당한 내일**

4년 전, 여러분께 호소드렸습니다.
대구 정치의 역동성을 위해 경쟁시켜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흔쾌히,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일하는 정치

등원하며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싸우지 않겠다. 공약을 지키겠다.
대구 발전을 위해 여야협력을 하겠다'

통합의 정치

싸우지 않았습니니다. 포용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상대방을 향해 모진 말, 독한 욕 하지 않았습니니다.

약속의 정치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황금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범어·만촌동 종 상향 문제의 구체적 해결 방안을 찾는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시지에 수영장을 건립했고, 금호강 둔치에 파크 골프장이 5월 개장합니다.
수십 년 묵은 숙원사업들을 착착 해결했습니다.

힘이 되는 정치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추경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대구 몫 1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취약계층까지
최대한 넓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대구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다 했습니다.

대구와 대한민국의 **당당한 내일**을 열겠습니다.
대구를 나라의 기둥으로 다시 세우는,
큰 정치에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김 부겸 올림

대구에 꼭 필요한 힘

대구를 위해 정부 여당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닥쳐올 위기를 예감하고 누구보다 먼저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추경이라면서 고작 6천억 원을 대구·경북에 배정했을 때, 그 내용도 대출이니 보증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직접 현금 지원이라야 한다며 기재부를 질타했습니다.

항상 대구시보다 한발 앞서 대구가 갈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어떤 지원도 정부 여당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김부겸의 코로나 추경일지

2월 12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최초로 추경 편성 주장



국무총리를 찾아가
재차 추경 필요성 설명

2월 19일

3월 2일

3월 5일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
작심 비판,
빛을 늘리는 간접지원 대신
직접 지원 강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향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촉구

예결위에 들어가 추경을 심의하면서 대구·경북 지원분으로 결국 1조 원을 더 갖고 왔습니다. 1년 예산이 전부 9조 원인 대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국가 책임제를 최초로 주장해 복지부가 도입했습니다. 추경을 집행하면서,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있는 만큼 최대한 대상을 넓혀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대구시도 적극 수용해, 전체 가구의 약 60%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3월 11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만남을 주선해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 약속 이끌어냄

3월 12일

3월 16일

3월 17일

드디어 대구·경북 특별지원금 1조원 증액, 총 2.4조원 추경안 통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구·경북을 위한 특별지원을 촉구하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구 민주당 전원과 생업·생계 직접 지원 요구 기자회견

해묵은 숙원부터 시원하게 풀었습니다



황금동 송전탑이 사라집니다

2021년 6월까지 송전선로 4km를 지중화하고 송전탑 15기가 철거됩니다.



신매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생깁니다

지하2층, 134면 규모의 공공주차장이 조성됩니다.
162억의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고산공공수영장이 생겼습니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내 부지에 수영장이 준공되었습니다.



만촌역 출구가 추가설치 됩니다

남부정류장 부지와 수성대 방향으로 시원하게 4개의 출구와
2개의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합니다.



만촌동에 행복드림센터가 생깁니다

2022년까지 공공수영장, 도서관, 공용주차장이 패키지로 들어섭니다.
김부겸·수성구청·수성대 3자 협치의 결과입니다.



수성알파시티가 대구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실증 프로젝트(614억),
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593억) 등
총 1,467억 규모의 알파시티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특별시, 대구

청년 신도시 2조원 프로젝트! 김부겸의 야심작 청년 신도시와 미래형 지식산업단지를 세웁니다



지난 10년간 대구를 떠난 20대 청년이 7만3천여 명입니다.
대구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출향했던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수성구 성동과 경산 정평동 일대에
미래산업과 교육, 문화, 주거의 결합을 통해
'청년 신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지구(8천억),
미래형 지식산업단지(5천억),
청년 활력공간(2백억), 생태 정원과
도시농업테마파크(8백억)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성구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범어권

- 법원 후적지에 글로벌 로봇산업 연구·교육단지 '로보듀플렉스' 조성
- 범어1동 범어먹거리타운 활성화 및 주차장 조성
- 범어3동 범어천 복개도로 환경개선 및 신천시장 주차장 조성
- 범어4동 대공원시장(대동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문화예술공간 등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 범어4동 범어공영주차장(KBS북편) 주차타워 건립
- 범어4동 주민센터 이전 조기 완공
- 범어4동 복합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 범어공원을 최고의 도심공원으로 개발

황금권

- 어린이회관 전면 리모델링 (4차산업혁명 체험존, 어린이창의놀이공간 등 조성)
- 황금2동 주민센터 이전 조기 완공
- 황금2동 복합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 수성구 보훈회관 건립
-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청소년 문화예술스포츠복합으로 조성)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용역을 통한 **종변경**
(범어·황금·만촌권)

창의명품 교육도시

-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수학명품도시 조성
초중고 방학·방과 후 수학 창의력 캠프 운영
수학 랜드마크 '수학문화관' 조성
- 글로벌 SW 최고급인재 양성 교육기관 (에콜42) 유치
- 국민공감 공정한 대입제도 개선
서울지역 16개 대학 수능전형 비율 40% 이상 확대(2023년 까지)
학생부종합전형 투명화·단순화
사회통합선발전형(지방·저소득층) 대폭 확대

수성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만촌권

- 만촌1동 생활문화센터 완공
- 만촌1동(본동), 만촌2동 버스노선 확충과 조정 (도시철도3호선 엑스코선 개통과 연계)
- 만촌2동 주민센터 이전
- 만촌2동 청구시장을 K뷰티센터로 개발
- 만촌3동 출퇴근길 교통정체 문제 개선
- 수성시니어클럽 이전

고산권

- 어린이전용 도서관 건립
-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완공
- 제2구민운동장 조성
- 고산노인복지관 증축
- 사월동 철도소음 방지 시설 개선
- 고산역 지하철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 한국전통문화의 자부심 간송미술관 건립
- 스포츠·문화·예술 콤플렉스 지구 조성(월드컵경기장 일원)
- 대구대공원 개발 완성(공동주택지구, 체험형 동물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산림레포츠시설 등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사통팔달 교통도시

- 3호선 엑스코선 건설 (수성구민운동장~동대구역~경북대~엑스코~이시아폴리스)
-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건설 (범물~대구스타디움~고산~혁신도시)
- 범안삼거리~황금네거리 도로 건설
- 고산3동주민센터~매호천 도로 조기 완공
- 범안로 무료화 관철

김부겸에게는 있습니다

결단력

위기의 순간마다 김부겸은 정면 돌파를 감행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 자리를 던지고 내렸던 대구행 결심, 포항 지진 현장에서의 수능 연기 결정, 코로나 추경에서 대구·경북 1조 원 증액을 위한 기재부 작심 비판, 김부겸은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정치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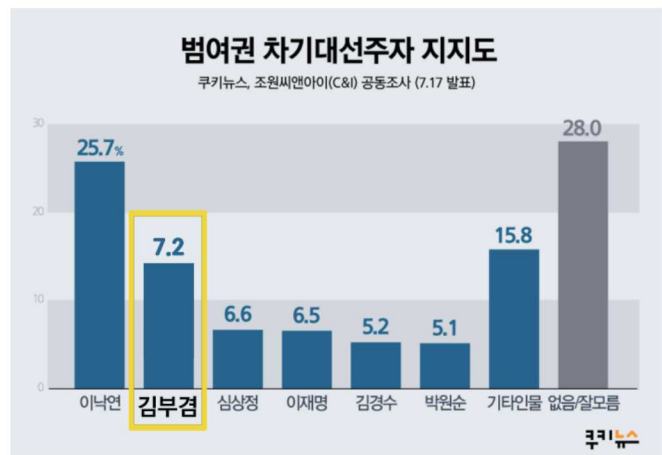


용기

순해 보이는 김부겸 속에는 미처 못 지운 학생운동가의 기개가 있습니다. KTX에서 진상 부리는 승객을 호통쳐 제압한 것은 차라리 해프닝이었습니다. 경찰 수뇌부를 일으켜 세우고, '국민에게 사죄의 뜻으로 차렷 경례' 구령을 붙였던 호랑이 같은 장관이 김부겸입니다.

큰 꿈

정치를 아시는 대구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김부겸씨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대구 왔을까? 지금이야 조용히 있지만 두고 보라, 조금 있으면 큰 꿈을 펼치려 할 것이다' 맞습니다. 김부겸에게는 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단순히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입니다. 한쪽만 대변하는 싸움꾼이 아니라, 양쪽을 묶어 더 큰 하나를 만드는 진짜 큰 꿈이 있습니다.



- 조사대상 :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 1,002명
- 조사방법 :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23%+휴대전화 77%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
- 조사기간 : 2019년 7월 13일~15일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3.1%(95% 신뢰수준)
- 조사 의뢰 및 기관 : 쿠키뉴스&(주)조원씨앤아이
- * 기타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부겸은

대구에 꼭 필요한 힘입니다

대구가 힘듭니다.
 코로나도 힘들지만, 대구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 더 힘들었습니다.
 당의 대변인이 '대구 봉쇄'라는 실언을 했습니다.
 즉각 호통을 쳤습니다. 다음 날 대변인은 사퇴했습니다.
 인터넷에서나 일부 언론이 '대구코로나'라는 식의 표현을 쓰길래,
 배려의 마음을 갖추라고 일갈했습니다.
 적어도 언론에서만큼은 쑥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 추경을 주장했을 때, 2월에 벌써 추경이냐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당도 '총선용 퍼주기'라며 일소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부겸은 관철했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께 여쭙습니다.

지금 대구에 누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당당한 내일입니다

대구는 나라를 운영했던 도시입니다.
 동네 정치나 하던 도시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대구 정치인의 그릇이 작아졌습니다.
 선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여당이면 어떻고, 야당이면 어떻습니까?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시대입니다.

김부겸은 민주당이지만, 영남 출신에
 대구가 키운 정치인입니다.
 학생 때는 운동권이었지만, 정치인이 되어서
 공존과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온건 합리적입니다.
 표의 확장력이 무한대입니다.

대구는 대권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보에도 보수에도 최소한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대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단연코 김부겸입니다.



대구시민이 영웅입니다

방역당국과 의료기관, 의료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우리 대구시민 모두가 영웅입니다.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오늘을
우리 모두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훗날 우리의 기억들이 모여
큰 역사가 될 것입니다.

첫 투표를 축하합니다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졌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첫 투표를 축하합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군복무기간 단축은
여러분의 헌신과 과학기술 군사체계의 도입으로
매끄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국민 모두가 걱정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몸 건강히 전역하고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김부겸 후보 선거 사무실 외벽 현수막



김부겸이
걸어온 길

경북 상주 출생
대구초 58회 / 대구중 26회
경북고 56회 / 서울대 정치학과(졸)

제16·17·18대 국회의원(경기 군포)
행정안전부 장관(전)
제20대 국회의원(대구 수성갑)

더불어 민주당 **1** 대구에 꼭 필요한 힘 **김부겸**